

광양, 김시식지 가치 현대적 조명

일자리 창출·관광산업 활성화

‘생생 김 여행’ 추진 업무협약

협동조합 연계 프로그램 운영

광양시가 세계 최초로 김 양식을 시작한 광양 김시식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이와 연관된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광양시는 최근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사업인 ‘광양 生生 김 여행’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사)김시식지유족보존회 등 25개 관련 단체와 광양시향토청년회 사무국에서 가졌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세계 최초로 김 양식을 한 광양김시식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 그 가치를 향유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

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참여 기관·단체는 협약을 통해 ‘광양 生生 김 여행’ 사업의 효율적 추진뿐만 아니라 광양김시식지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하고 광양김시식지를 넘어 지역 문화재의 활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한 먹거리 ‘원조 광양김부각’ 생산을 통해 글로벌 김 음식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광양김협동조합’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체험이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시와 광양시향토청년회는 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 ‘광양김 토크콘서트 김김김 라이브’,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 ‘광양김 양식 1643 시간여행’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광양 生生 김 여행’ 사업을 시민과 관광객

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대성 광양시향토청년회장은 “생생문화재 ‘광양 生生 김 여행’ 사업을 지역 기관·단체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조적 슬기와 삶의 지혜를 통해 김 양식법을 창안 전파한 해운 김여익과 광양김시식지의 인물·문화재적 재조명은 물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 生生 김 여행’ 사업은 2020년부터 광양시와 광양시향토청년회가 전라남도 기념물 제113호 광양김시식지를 활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3개 프로그램, 36회를 진행했고 문화재청이 주최한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광양지역 최초로 문화재청 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권동현 기자



한에서 ‘바다의 보물’



최윤지 ‘새벽 물길’

여수미술관, 청소년 화가 데뷔전 ‘새벽일기’

23일까지 작품 24점 선봬

여수미술관(관장 서봉희)은 오는 23일까지 미래의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아주 특별한 전시, 청소년들의 화가 데뷔전 ‘새벽일기’를 개최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여수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

생동감 넘치는 여수선어시장 사람들, 새벽부터 출근하는 여수 산단 근로자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도서관을 향하는 학생들,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이처럼 그들은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아주 평범하고

선한 이웃의 얼굴들이다.

인물화는 한 화가의 개성과 표현방식의 결합 함 외에 역사적 기록물로서도 무척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을 직시하고 내안의 편견을 버리며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 ‘새벽일기’는 미래의 작가 청소년 7명(김예솔, 남시연, 이지은, 이지혜, 이재린, 최윤지, 한에서)의 참여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는 인물들을 찾아 담아낸 수채화 작품 24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우성진 기자



고흥군이 최근 여성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성료

고흥군이 최근 고흥군민회관에서 지역의 10개 여성단체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 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됐으며 ‘고흥의 희망찬 미래,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개회식과 우리의 다짐 선서, 퍼포먼스에 이어 신명 나는 레크레이션 등 화합 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김연숙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여성의 화합과

역량을 총 결집해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살기 좋은 희망찬 고흥, 잘사는 고흥을 완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고흥의 힘은 여성에서 나오고 여성이 행복하면 고흥이 행복해진다”며 “위대한 힘과 열정의 에너지로 우리 고흥이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 1만 6,964명의 회원으로 조직됐으며 불우이웃돕기, 취약계층 위문,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은 물론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흥=진종언 기자

순천, ‘일류 2050 TF’ 구성

순천시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 ‘(가칭)일류 순천 2050 TF’를 구성했다.

‘일류 순천 2050 TF’는 실무적으로 경험 많고 유능한 직원들과 참신하고 스마트한 MZ세대 직원 등 다양한 세대와 여러 분야의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해 이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TF는 모방하는 게 아닌 창조한다는 자세로 순천시의 미래비전과 일류 순천의 독보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경제, AI·수소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사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며, 저점별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박경식 기자

9월 30일까지 총 81회 추진

곡성군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죽곡면 원담마을을 시작으로 9월 30일까지 먼 소재 27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일 오전과 오후에 소규모로 각 마을별 3회, 총 81회 추진한다.

참석한 주민들은 ‘오늘도 웃어요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직접 마을 의제를 다룬다. 원활한 워크숍을 위해 메인 퍼실리테이터, 보조 퍼실리테이터, 곡성군 지역활동가들로 구성된 7~8개 운영팀이 주민들을 돕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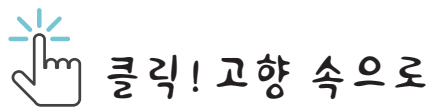
주요 교육 내용은 1회차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 과거 공동체 활동 등을 살펴보는 활

동을 진행한다. 2회차에는 각자가 원하는 마을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위한 마을 실천 과제 찾기, 마을 의제 발굴, 활동계획서 작성을 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함양한다. 마지막 3회차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마을 규약을 만들고 그동안 워크숍을 통해 찾은 마을 의제를 정리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곡성군은 지난 6월에 27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효과적인 워크숍 운영을 위해 민문식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과 워크숍 강사진의 만남을 주선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신나고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곡성 고달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곡성군 고달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최근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정 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고달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 계층의 일상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인적 안전망으로 생활 안정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7명의 대원들이 참여했으며, 대상자의 주택 환경을 정리하고 낡고 오염된 집안의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다.

고달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여수 돌산읍 지사협, 청소봉사 ‘구슬땀’

여수시 돌산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생활형편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찾아 청소 봉사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협착증 수술 후유증이 생겨 보행이 불편한 상황이며, 치매와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배우자가 방안 곳곳에 핀 곰팡이로 인해 퇴원을 못 하는

상황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안에 방치된 오래된 쓰레기를 배출하고 생활용품 정리정돈 등 폭염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렸다.

정덕영 돌산읍장은 “앞으로도 민관협력력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



보성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보성경찰서는 최근 보성군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OX퀴즈로 제작해 간단한 퀴즈활동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해 외출시 발

은 옷 입기, 무단횡단 절대 금지 등 방 어보행 3원칙을 강조하며, 형광조끼 및 형광지팡이 등을 배부했다.

오민관 서장은 “보성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어르신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